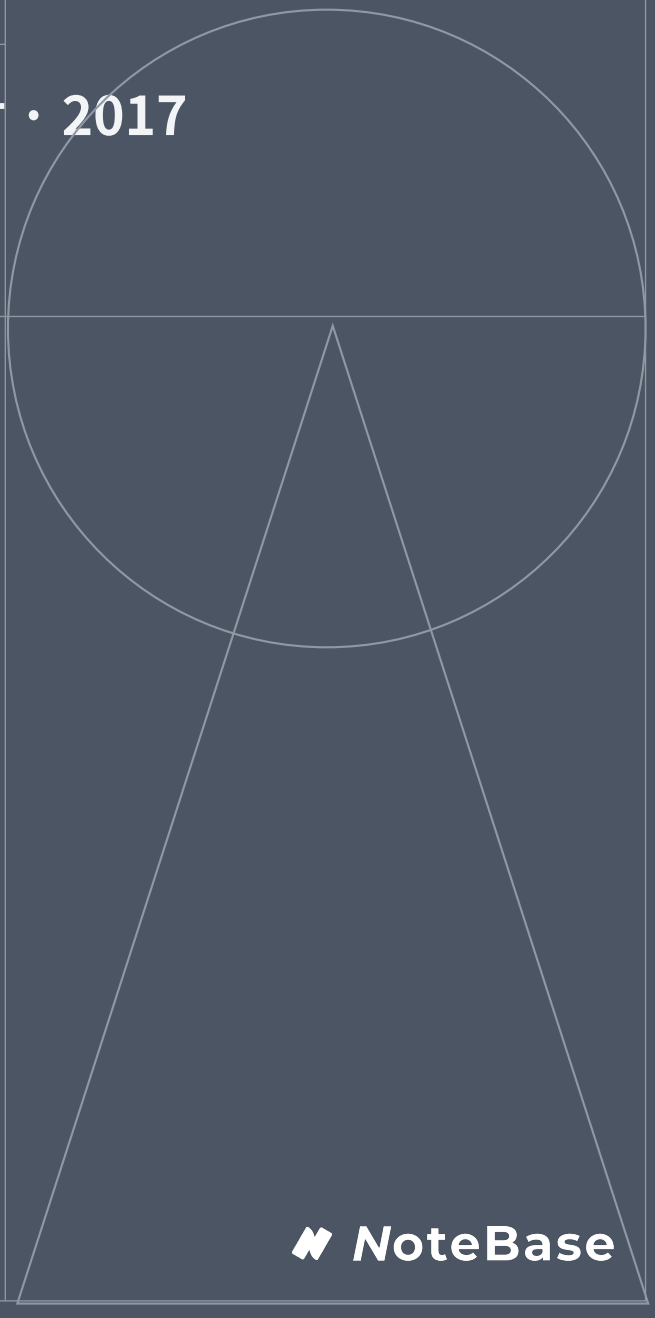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7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17

문 1.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으며, 정보이용자들이 미래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③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④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과 정보 생산 절차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며, **추정치까지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목적적합성은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다. 정보가 미래결과를 예측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O: 예측가치는 정보 자체가 미래의 예상 수치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결과를 예측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과거 매출액도 미래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예측가치를 가질 수 있다.

③ O: 비교가능성은 항목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하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기업 간 또는 동일 기업의 기간 간 재무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④ X: '오류가 없다'는 충실한 표현의 한 요소로, 현상을 기술할 때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정보를 생산하는 절차를 선택·적용할 때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금액의 추정치는 그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추정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면, 실제 결과와 다르더라도 오류 없는 표현이 될 수 있다.

NoteBase

문 2. 회계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분류할 때, 그 분류가 다른 것은?

①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②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

③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

④ 감가상각자산의 측정모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바꾸는 것은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판단을 수정하는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선지별 해설

회계정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다. 회계추정은 불확실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단으로,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 예상 사용기간, 처분 시 회수할 금액 등에 관한 판단이 이에 해당한다.

① 회계추정의 변경: 정률법은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크고 이후 감소하는 방법이며,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일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에 관한 판단을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② 회계추정의 변경: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다. 이를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예상 사용기간**에 대한 추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③ 회계추정의 변경: 잔존가치는 자산이 내용연수 말에 예상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가정할 때 처분으로 회수할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에서 처분원가를 뺀 금액이다. 이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 시 순회수액**에 대한 추정을 수정하는 것이다.

④ 회계정책의 변경: 원가모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자산을 측정한다. 재평가모형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추정치의 조정이 아니라 **자산의 측정기준 자체의 변경**이다.

①~③은 회계추정의 변경인 데 비해, ④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분류가 다르다.

NoteBase

문 3. 수정전시산표와 수정후시산표의 비교를 통한 수정분개 추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계정과목	수정전시산표	수정후시산표
㉠	이자비용	₩3,000	₩5,000
	미지급이자	₩1,000	₩3,000
㉡	상품	₩1,500	₩2,500
	매입	₩6,000	₩0
	매출원가	₩0	₩5,000
㉢	선급보험료	₩2,400	₩1,200
	보험료	₩2,000	₩3,200
㉣	선수임대수익	₩1,800	₩1,200
	임대수익	₩1,500	₩2,100

① ㉠ 차변: 이자비용 ₩2,000
대변: 미지급이자 ₩2,000

② ㉡ 차변: 매출원가 ₩6,000, 상품 ₩1,000
대변: 매입 ₩7,000

③ ㉢ 차변: 보험료 ₩1,200
대변: 선급보험료 ₩1,200

④ ㉣ 차변: 선수임대수익 ₩600
대변: 임대수익 ₩6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에서 매입은 6,000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므로 대변에 **매입 6,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상품은 1,000원 증가하고 매출원가는 5,000원 증가하므로, 차변은 상품 1,000원과 **매출원가 5,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수정분개는 수정전시산표의 잔액을 수정후시산표의 잔액으로 바꾸는 기록이다. 자산·비용은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부채·수익은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한다.

① O: ㉠의 이자비용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2,000원 증가하고, 미지급이자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0원 증가한다. 이는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비용과 부채로 함께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차변에 이자비용 2,000원, 대변에 미지급이자 2,000원을 기록한다.

② X: ㉡의 상품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1,000원 증가하고, 매입은 6,000원에서 0원으로 6,000원 감소하며, 매출원가는 0원에서 5,000원으로 5,000원 증가한다. 기초상품과 당기매입액 중 기말에 남은 상품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원가이므로, 1,500 + 6,000 − 2,500 = 5,000원이다. 따라서 수정분개는 차변에 **매출원가 5,000원, 상품 1,000원**, 대변에 **매입 6,000원**을 기록해야 한다. 선지의 매출원가 6,000원과 매입 7,000원은 각각 1,000원씩 과다하다.

③ O: ㉢의 선급보험료는 2,400원에서 1,200원으로 1,200원 감소하고, 보험료는 2,000원에서 3,200원으로 1,200원 증가한다. 미리 낸 보험료 중 **당기에 보장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차변에 보험료 1,200원, 대변에 선급보험료 1,200원을 기록한다.

④ O: ㉣의 선수임대수익은 1,800원에서 1,200원으로 600원 감소하고, 임대수익은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증가한다. 미리 받은 임대료 중 **당기에 임대용역을 제공한 부분**을 부채에서 수익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차변에 선수임대수익 600원, 대변에 임대수익 600원을 기록한다.

NoteBase

문 4. 도소매기업인 (주)한국의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 매출원가는? (단, 모든 매입거래는 외상 매입거래이다)

기초매입채무 ₩43,000
기말매입채무 ₩41,000
매입채무 현금상환 ₩643,000
기초재고자산 ₩30,000
기말재고자산 ₩27,000

① ₩642,000
② ₩644,000
③ ₩646,000
④ ₩647,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입채무가 2,000원 감소했으므로 현금상환액 643,000원 중 당기 매입액은 **641,000원**이다. 여기에 재고자산 감소액 3,000원을 더하면 **매출원가는 644,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당기 매입액: 모든 매입거래가 외상이므로 당기 매입액은 매입채무를 증가시키고, 현금상환액은 매입채무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초매입채무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현금상환액을 빼면 기말매입채무가 된다. 매입채무가 43,000원에서 41,000원으로 감소했으므로 **현금상환액은 당기 매입액보다 2,000원 많다**. 당기 매입액은 643,000 + 41,000 − 43,000 = 641,000원이다.

2. 매출원가: 기초재고자산과 당기 매입액을 합한 금액은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이다. 여기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기말재고자산을 차감**하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된다. 따라서 2016년 매출원가는 30,000 + 641,000 − 27,000 = 644,000원이며, 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5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200,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2015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20,000, ₩100,000이었다. 2016년 7월 1일에 ₩90,000의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① 처분이익 ₩50,000

② 처분이익 ₩30,000

③ 처분손실 ₩15,000

④ 처분손실 ₩12,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을 반영한 2015년 말 장부금액 12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4년**에 걸쳐 상각한다. 2016년 상반기 감가상각비 15,000원을 차감하면 처분일 장부금액은 105,000원이므로, 처분대금 90,000원과의 차이인 **처분손실 15,0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2015년 감가상각: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0}{5}=40,000$원이다. 1월 1일에 취득했으므로 1년분을 상각하며, 손상검사 전 장부금액은 200,000 − 40,000 = 160,000원이다.

2. 2015년 말 손상차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120,000원이다. 장부금액 160,000원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므로 손상차손 160,000 − 120,000 = 40,000원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장부금액은 120,000원이 된다.

3. 2016년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 손상 후에는 **조정된 장부금액을 잔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5년 중 1년이 지났으므로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며,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20,000-0}{4}=30,000$원이다. 7월 1일 처분이므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월할 계산하면 $30,000\cdot\frac{6}{12}=15,000$원이다. 처분일 장부금액은 120,000 − 15,000 = 105,000원이다.

4. 유형자산처분손익: 처분대금에서 처분일 장부금액을 차감하면 90,000 − 105,000 = −15,000원이다. 처분대금이 장부금액보다 적으므로 처분손실 15,000원을 인식하며,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수익금액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기업에 유입되는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출판물 구독의 경우, 해당 품목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의 경우,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재화의 선적을 수락한 시점이나 재화를 인도받은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③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더라도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익을 인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은 실질이 금융거래이므로, 받은 대금은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출판물 구독은 구독기간 동안 출판물을 계속 발송하는 거래이다. 매기 발송하는 품목의 가액이 비슷하면 기간별로 제공하는 가치도 비슷하므로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구독료를 미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② O: 제한적인 반품권이 있고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재화를 보냈더라도 판매자가 반품에 따른 위험을 계속 부담하므로 수익 인식을 미룬다.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선적을 수락하거나, 재화를 인도받은 후 반품기간이 종료**되어 반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③ O: 위탁판매에서 수탁자는 재화를 사는 구매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따라서 수탁자에게 재화를 보낸 것만으로는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한다. 그전까지 재화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④ X: 재고자산의 판매 후 재매입 약정에서는 법적 소유권의 이전뿐 아니라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실질적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매자가 위험과 보상을 계속 보유한다면 거래의 실질은 재고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이다. 따라서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판매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받은 대금은 부채로 처리하며 해당 재고자산은 계속 자산으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의 2016년 자본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에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 3월 2일: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700에 발행하였다.
◯ 5월 10일: 우선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주당 ₩600에 발행하였다.
◯ 9월 25일: 보통주 50주(주당 액면금액 ₩500)를 발행하면서 그 대가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보통주 주당 공정가치는 ₩1,000이었다.

① ₩20,000
② ₩40,000
③ ₩45,000
④ ₩65,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대가에서 액면금액을 뺀 금액**이다. 건물 취득을 위해 발행한 보통주도 주당 공정가치 1,000원을 발행대가로 적용하므로, 세 거래의 초과금 합계는 65,000원이다.

계산 과정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발행대가 중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록한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한다.

3월 2일 보통주 발행: 주당 발행금액 700원에서 액면금액 500원을 뺀 200원이 주당 초과금이다. 100주를 발행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700 − 500) × 100 = 20,000원 증가한다.

5월 10일 우선주 발행: 주당 발행금액 600원에서 액면금액 500원을 뺀 100원이 주당 초과금이다. 200주를 발행했으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600 − 500) × 200 = 20,000원 증가한다.

9월 25일 건물 취득: 현금 대신 건물을 받고 보통주 50주를 발행한 거래이다. 주어진 **보통주의 주당 공정가치 1,000원**을 적용하면 발행대가는 1,000 × 50 = 50,000원이다. 이 중 자본금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500 × 50 = 25,000원이고, 나머지 50,000 − 25,000 = 25,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다.

2016년 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없으므로 이를 상계할 금액도 없다. 따라서 세 거래의 증가액을 합한 20,000 + 20,000 + 25,000 = 65,000원이며,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2016년 토지와 단기차입금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의 투자 및 재무현금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다)

	기초	기말
토지(유형자산)	₩150,000	₩250,000
단기차입금	₩100,000	₩180,000

<추가자료>

○ 토지는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2016년에 손상차손은 없었다.

○ 2016년 중에 토지(장부금액 ₩50,000)를 ₩75,000에 매각하였다.

○ 2016년 중에 단기차입금 ₩100,000을 차입하였다.

① 토지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100,000이다.

② 토지의 취득과 매각으로 인한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은 ₩75,000이다.

③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80,000이다.

④ 단기차입금의 상환 및 차입으로 인한 재무활동순현금유입은 ₩100,000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토지는 매각한 부분의 장부금액 50,000원까지 보충해야 기말 잔액이 되므로, 취득에 지급한 현금은 150,000원이다. 여기서 매각대금 75,000원을 차감한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은 75,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자료의 금액 단위는 원이며, 모든 거래가 현금거래이므로 토지 취득액·매각대금과 차입액·상환액을 각각 현금유출·유입으로 연결한다. 기초·기말 잔액의 차이는 당기 증가와 감소가 함께 반영된 금액이므로, 이를 취득액이나 상환액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① X: 토지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손상차손도 없으므로, 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에 취득액을 더하고 매각한 토지의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취득액은 250,000 − 150,000 + 50,000 = 150,000원이다. 모든 거래가 현금거래이므로 토지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100,000원이 아니라 150,000원**이다. 기말과 기초의 차이 100,000원은 매각으로 감소한 금액까지 반영된 순증가액이다.

② O: 토지 취득과 매각은 투자활동에 해당한다. 취득으로 150,000원이 유출되고 매각대금 75,000원이 유입되므로,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은 150,000 − 75,000 = 75,000원이다. 이때 현금유입액은 **매각한 토지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실제 매각대금**이다. 장부금액 50,000원과 매각대금 75,000원의 차이는 처분이익이며, 별도의 현금유입이 아니다.

③ X: 단기차입금의 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에 신규 차입액을 더하고 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기초 100,000원에 당기 차입액 100,000원을 더하면 상환 전 금액은 200,000원이다. 기말 잔액이 180,000원이므로 상환액은 200,000 − 180,000 = 20,000원이다. 따라서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8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다.

④ X: 단기차입금의 차입과 상환은 재무활동에 해당한다. 당기 차입으로 100,000원이 유입되고 상환으로 20,000원이 유출되므로, 재무활동순현금유입은 100,000 − 20,000 = 80,000원이다. 선지의 100,000원은 **상환액을 차감하기 전의 차입 현금유입액**이다.

NoteBase

문 9. 정부 기관인 A부처는 2016년 7월 1일 (주)한국과 수익(교환 또는 비교환)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 총액은 ₩1,200,000이다. 계약서 상 청구권 확정/고지일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A부처가 2016년에 인식할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수익이 교환수익이면 사용료수익, 비교환수익이면 부담금수익으로 가정한다)

청구권 확정/고지일	청구 금액
2016. 10. 31.	₩ 200,000
2017. 1. 31.	₩ 300,000
2017. 4. 30.	₩ 300,000
2017. 8. 31.	₩ 400,000

①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800,000 덜 인식한다.

②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200,000 더 인식한다.

③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와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동일하다.

④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400,000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용료수익은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2016년 9~12월분 400,000원을 인식하고, 부담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금액**인 200,000원을 인식한다. 따라서 교환수익일 때 수익을 200,000원 더 인식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사용료수익(교환수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교환수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문제의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계약 체결일인 2016년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사용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전체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의 12개월이고, 그중 2016년에 속하는 기간은 9~12월의 4개월이다. 따라서 2016년 사용료수익은 $1{,}200{,}000 \times \frac{4}{12} = 400{,}000$원이다. 이는 계약금액 중 2016년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해 청구한 금액과는 다르다.

부담금수익(비교환수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확정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표에서 2016년에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10월 31일의 200,000원뿐이므로, 2016년 부담금수익은 200,000원이다. 2017년 1월 31일의 300,000원, 4월 30일의 300,000원, 8월 31일의 400,000원은 2016년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담금수익은 이 계약의 전체 금액을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는다.

수익금액의 차이: 400,000 − 200,000 = 200,000원이다. 교환수익에 해당할 때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때보다 수익을 200,000원 더 인식하므로 ②의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원가 계산방법과 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저점법은 원가를 기준으로 최저점과 최고점에 해당하는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원가 추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② 변동원가계산과 비교하여 전부원가계산은 회계기간 말에 불필요한 생산을 늘려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방지할 수 있다.

③ 단위당 판매가와 총고정원가가 일정할 경우 단위당 변동원가가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높아진다.

④ 차이분석에서 유리한 차이는 실제원가가 예산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추가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단위당 변동원가가 커지면 판매가에서 변동원가를 뺀 **단위당 공헌이익이 감소**한다. 같은 총고정원가를 회수하려면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해야 하므로 손익분기점이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고저점법은 원가의 크기가 아니라 **조업도가 가장 높은 시점과 가장 낮은 시점**의 자료를 선택한다. 두 시점의 원가 차이를 조업도 차이로 나누어 단위당 변동원가를 추정하고, 각 시점의 총원가에서 추정 변동원가를 빼 총고정원가를 구한다. 따라서 원가가 가장 크거나 작은 시점이 조업도의 최고점·최저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므로, 판매량이 같은 상태에서 생산을 늘려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일부가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다음 기간으로 이연**된다. 이에 따라 당기 비용이 줄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생산 유인이 생긴다. 반면 변동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러한 이익 증가 유인을 억제한다.

③ O: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데 기여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Q, 총고정원가를 F, 단위당 판매가를 p, 단위당 변동원가를 v라고 하면 $Q = \frac{F}{p-v}$이다. **단위당 공헌이익이 양수인 범위**에서 p와 F가 일정하고 v가 커지면 분모인 단위당 공헌이익이 작아져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증가한다. 판매가가 일정하므로 손익분기점 매출액도 증가한다.

④ X: 원가의 유리한 차이는 실제원가가 비교 기준인 예산원가보다 적다는 뜻이지만,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저품질 재료를 구매해 유리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불량이나 재작업으로 다른 원가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한 차이도 발생 원인과 품질·다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NoteBase

문 11.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의무는 제외된다.

③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충당부채의 현재의무에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법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기업의 과거 관행이나 공표한 방침 등으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했다면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지급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이를 인식하려면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의무 이행에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지출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② X: 현재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법적 의무는 계약이나 법률 등에 따라 발생한다. 의제의무는 기업의 확립된 과거 관행, 공표한 방침 또는 구체적인 약속 등으로 기업이 책임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한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의제의무는 제외된다'는 표현을 '의제의무도 포함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뜻이다. 확률로 표현하면 50%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유출이 확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충당부채로 인식할 의무는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기업이 앞으로 영업방식을 바꾸는 등의 행동으로 지출 자체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지출에 대한 현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미 발생한 의무가 계속 존재하면서 미래행위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의 기말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③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감가상각은 기말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절차가 아니라,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자산에서 얻는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기간에 그 금액을 나누어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감가상각은 **가치평가가 아니라 금액의 배분**이다. 취득원가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따라서 '기말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기 위해'로 고쳐야 한다. 공정가치 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재평가와 감가상각은 구별된다.

② O: 감가상각방법은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한다. 효익이 매 기간 균등하게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면 정액법을, 사용 초기에 더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면 체감잔액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자산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형태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③ O: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부분**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의 감가상각액은 제조원가를 통해 재고자산에 포함되고, 그 제품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된다. 따라서 감가상각액이 항상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은 모두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추정이 달라지거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가 유의적으로 변하면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여 변경 시점 이후의 감가상각에 반영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최고경영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활동기준원가계산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활동	제조간접비	원가동인	제품 A	제품 B
제품설계	₩400	부품 수	2개	2개
생산준비	₩600	준비횟수	1회	5회

① 제품설계활동의 원가동인은 부품 수, 생산준비활동의 원가동인은 준비횟수이다.

② 활동기준원가계산 하에서 제품 A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는 ₩300, 제품 B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는 ₩700이다.

③ 만약 (주)한국의 제품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각 제품별 생산수량이 줄어든다면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없다.

④ 기존의 제품별 원가와 이익수치가 비현실적이어서 원가계산의 왜곡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제품종류가 다양해지고 제품별 생산수량이 줄면,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설계·생산준비 활동의 원가를 구분할 필요가 커진다. 따라서 활동별 자원 소비를 반영하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 실익이 커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원가동인은 활동의 원가를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해당 활동의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기준이 된다. 제시된 표에서 제품설계활동은 **부품 수**, 생산준비활동은 **준비횟수**를 원가동인으로 사용한다.

② O: 활동기준원가계산은 **활동별 원가동인 사용량**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제품설계 원가 400원은 부품 수 합계 4개, 생산준비 원가 600원은 준비횟수 합계 6회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품설계 배부율: $\frac{400}{2+2} = 100$원/개
생산준비 배부율: $\frac{600}{1+5} = 100$원/회
제품 A의 배부액: $2 \times 100 + 1 \times 100 = 300$원
제품 B의 배부액: $2 \times 100 + 5 \times 100 = 700$원
두 제품의 설계원가 배부액은 각각 200원으로 같지만, 생산준비원가는 준비횟수에 따라 A에 100원, B에 500원이 배부된다.

③ X: 제품종류가 다양해지면 제품별 설계와 생산준비 등 활동의 소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제품별 생산수량이 줄어도 생산준비는 필요하므로, 이러한 원가를 생산량만으로 배부하면 제품별 실제 자원 소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생산량 이외의 원가동인도 사용하므로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원가왜곡을 줄이는 실익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도입할 실익이 없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④ O: 제품별 원가와 이익이 비현실적이라면 기존 배부기준이 실제 자원 소비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를 활동별로 구분한 뒤 각 제품의 활동 소비량에 따라 배부하므로, **배부기준으로 인한 원가 왜곡**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은 단일의 공정을 거쳐 A, B 두 종류의 결합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 첫 해인 당기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균등이익률법으로 배부할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결합원가로 옳은 것은?

	추가가공 후 최종가치(매출액)	추가가공원가
제품 A	₩100	₩50
제품 B	₩300	₩50

① 제품 A: ₩25, 제품 B: ₩175

② 제품 A: ₩50, 제품 B: ₩150

③ 제품 A: ₩150, 제품 B: ₩50

④ 제품 A: ₩175, 제품 B: ₩25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균등이익률법은 두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동일하게** 맞춘다. 전체 매출총이익률 25%를 적용한 제품별 총원가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빼면 결합원가 배부액은 A 25원, B 175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균등이익률법은 각 제품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아지도록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다. 각 제품의 총원가는 결합원가 배부액과 추가가공원가의 합계이므로, **매출액에서 목표 매출총이익을 뺀 총원가**를 구한 뒤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한다.

전체 매출총이익률: 표의 추가가공 후 최종가치인 매출액은 A 100원, B 300원으로 합계 400원이다. 전체 총원가는 결합원가 200원에 추가가공원가 50원과 50원을 더한 300원이고, 매출총이익은 400 − 300 = 100원이다. 따라서 두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매출총이익률은 $\frac{100}{400} = 25\%$이다.

제품 A: 매출총이익은 100 × 25% = 25원이고, 총원가는 100 − 25 = 75원이다. 이 75원에는 **추가가공원가 5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합원가 배부액은 75 − 50 = 25원이다.

제품 B: 매출총이익은 300 × 25% = 75원이고, 총원가는 300 − 75 = 225원이다. 여기서 추가가공원가 50원을 빼면 결합원가 배부액은 225 − 50 = 175원이다.

결합원가 배부액은 제품 A 25원, 제품 B 175원으로 ①과 일치한다. 배부액 합계도 25 + 175 = 200원으로 주어진 결합원가와 같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A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 3년 만기 B회사채(2016년 1월 1일 액면발행, 액면가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이자지급)를 ₩1,010,000에 취득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말 A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9,500이고, B회사채의 공정가치는 ₩1,050,000이다. (주)한국의 A주식과 B회사채 보유가 2016년도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당기손익 ₩40,000 감소, 기타포괄손익 ₩30,000 증가

② 당기손익 ₩4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50,000 감소

③ 당기손익 ₩3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불변

④ 당기손익 ₩3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50,000 감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주식의 평가손실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B회사채는 취득 전에 발생한 이자를 제외한 **9개월분 이자수익 30,000원**만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공정가치 상승분은 인식하지 않는다.

계산 과정

A주식: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취득금액은 100주 × 10,000원 = 1,000,000원이고, 연말 공정가치는 100주 × 9,500원 = 950,000원이다. 따라서 평가손실 50,000원으로 **기타포괄손익이 감소**하며,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B회사채의 취득금액 구분: 연간 표시이자는 1,000,000원 × 4% = 40,000원이다. 4월 1일 지급한 1,010,000원에는 발행일부터 취득 전까지 3개월간 발생한 경과이자 40,000 × (3)/(12) = 1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과이자는 연말 이자 수령 시 회수할 금액이므로 **회사채 취득원가와 구분**한다. 회사채 자체의 취득원가는 1,010,000원 − 10,000원 = 1,000,000원으로 액면가액과 같아 할인·할증 상각은 없다.

B회사채의 당기손익: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므로 연말 공정가치 1,05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자수익은 **취득 후 보유기간인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으로, 40,000 × (9)/(12) = 30,000원이다. 연말에 받는 이자 40,000원 중 10,000원은 취득 시 지급한 경과이자의 회수이고, 나머지 30,000원이 당기 이자수익이다. 따라서 당기손익은 30,000원 증가하고 기타포괄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합산: A주식과 B회사채 보유에 따른 영향은 당기손익 30,000원 증가, 기타포괄손익 50,000원 감소로,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만기 3년의 사채를 유효이자율 연 10%를 적용하여 ₩925,390에 발행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이 ₩947,929이라면 이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① 7%

② 8%

③ 9%

④ 1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이자비용 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큼 사채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이자비용 92,539원에서 장부금액 증가액 22,539원을 빼면 현금이자는 70,000원이며, 이를 **액면금액으로 나눈 표시이자율**은 7%이다.

계산 과정

1. 유효이자비용 계산: 2016년 1월 1일에 발행했으므로 2016년 말까지의 이자계산기간은 1년이다. 유효이자율법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2016년 이자비용은 $925{,}390 \times 10\% = 92{,}539$원이다.

2.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계산: 액면금액 1,000,000원보다 낮은 925,390원에 발행했으므로 할인발행 사채이다. 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면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에 가까워지도록 증가한다. 따라서 2016년의 상각액은 장부금액 증가액인 $947{,}929 - 925{,}390 = 22{,}539$원이다.

3. 현금이자 계산: 할인발행 사채의 이자비용은 현금이자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합계이다. 이 중 상각액은 현금 지급 없이 장부금액을 늘린 부분이므로, 이자비용에서 상각액을 빼면 현금이자가 된다. 현금이자는 $92{,}539 - 22{,}539 = 70{,}000$원이다.

4. 표시이자율 계산: 표시이자율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이자를 정하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표시이자율은 $\frac{70{,}000}{1{,}000{,}000} \times 100 = 7\%$이며, ①의 7%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한국은 2016년 초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발행금액 ₩6,000)를 발행하였으며,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원가 ₩80,000과 간접원가 ₩10,000이 발생하였다. ㈜한국의 주식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자본의 증가는 ₩1,200,000이다.

②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120,000이다.

③ 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는 ₩110,000이다.

④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간접원가 ₩90,000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식발행초과금에서는 주식 발행의 **직접원가만 차감**하고, 간접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액면금액을 초과한 발행대금 200,000원에서 직접원가 80,000원을 차감하므로 자본잉여금은 120,000원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액면금액은 자본금으로,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분한다. 주식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고, 간접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① X: 주주에게 받은 발행대금은 200주 × 6,000원 = 1,200,000원이지만, 이것이 자본의 순증가액은 아니다.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200주 × 5,000원 = 1,000,000원 증가하고, 자본잉여금은 200,000원 − 80,000원 = 120,000원 증가한다. 간접원가 10,000원은 당기비용으로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므로, 관련 원가를 모두 반영한 **자본의 순증가액은 1,110,000원**이다.

② O: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부분은 200주 × (6,000원 − 5,000원) = 200,000원이다.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없으므로 이 금액에서 직접원가 80,000원을 차감한 120,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남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포함**되므로 자본잉여금의 증가액도 120,000원이다.

③ X: 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액은 110,000원이 아니라 **120,000원**이다. 간접원가 1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10,000원은 액면초과 발행대금 200,000원에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모두 뺀 금액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액과 구별해야 한다.

④ X: 주식 발행에 직접 귀속되고 해당 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직접원가 80,000원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 문제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이며, 간접원가 10,000원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직·간접원가 90,000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은 보조부문인 동력부와 제조부문인 절단부, 조립부가 있다. 동력부는 절단부와 조립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제조부문의 월간 전력 최대사용가능량과 3월의 전력 실제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할 경우 절단부와 조립부에 배부될 동력부의 원가는?

	절단부	조립부	합계
최대사용가능량	500 kw	500 kw	1,000 kw
실제사용량	300 kw	200 kw	500 kw

한편, 3월 중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동력부	절단부	조립부	합계
변동원가	₩50,000	₩80,000	₩70,000	₩200,000
고정원가	₩100,000	₩150,000	₩50,000	₩300,000
합계	₩150,000	₩230,000	₩120,000	₩500,000

① 절단부: ₩75,000, 조립부: ₩75,000

② 절단부: ₩80,000, 조립부: ₩70,000

③ 절단부: ₩90,000, 조립부: ₩60,000

④ 절단부: ₩100,000, 조립부: ₩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동력부의 변동원가 50,000원은 **실제사용량 비율 3:2**로, 고정원가 100,000원은 **최대사용가능량 비율 1:1**로 배부한다. 따라서 절단부에는 30,000 + 50,000 = 80,000원, 조립부에는 20,000 + 50,000 = 70,000원이 배부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배부 대상: 이중배부율법은 보조부문의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여 각각의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배부할 동력부원가는 변동원가 50,000원과 고정원가 100,000원으로, 합계 150,000원이다. 문제는 **동력부에서 각 제조부문으로 배부되는 금액**을 묻고 있으므로, 절단부와 조립부에서 자체 발생한 원가는 더하지 않는다.

절단부의 변동원가 배부액: 변동원가는 전력 소비에 따라 발생하므로 **실제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전체 실제사용량 500kw 중 절단부가 사용한 양은 300kw이므로, 배부액은 $50{,}000 \times \frac{300}{500} = 30{,}000$원이다.

조립부의 변동원가 배부액: 전체 실제사용량 500kw 중 조립부가 사용한 양은 200kw이므로, 배부액은 $50{,}000 \times \frac{200}{500} = 20{,}000$원이다.

고정원가 배부액: 고정원가는 전력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가이므로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절단부와 조립부의 최대사용가능량은 각각 500kw로 같으며, 합계는 1,000kw이다. 따라서 각 부문의 고정원가 배부액은 $100{,}000 \times \frac{500}{1{,}000} = 50{,}000$원이다.

절단부의 총배부액: 변동원가 배부액 30,000원과 고정원가 배부액 50,000원을 합하면 80,000원이다.

조립부의 총배부액: 변동원가 배부액 20,000원과 고정원가 배부액 50,000원을 합하면 70,000원이다.

따라서 절단부 80,000원·조립부 70,000원인 ②에 해당한다. 두 배부액의 합계는 150,000원으로 동력부 총원가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용량비례법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민편의시설 가운데 **상각대상 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정액법은 감가상각할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재고부터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이 더 합리적이면 개별법·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총평균법이 원칙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② X: 같은 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평균법은 같은 종목의 취득금액과 수량을 합산하여 평균단가를 구하는 방법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총평균법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같은 규칙 제49조제2항은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비용으로 배분한다. 선지는 주민편의시설 전체가 아니라 상각대상 자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④ X: 같은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도 제49조의 정액법 원칙을 준용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로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도시철도·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과 감가상각하지 않은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사용량비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5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2,000,000에 일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500,000이었다. 건물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연수합계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건물에 대해 2016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① ₩750,000

② ₩625,000

③ ₩600,000

④ ₩5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일괄 취득금액을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면 건물 취득원가는 1,200,000원이다. 2016년에는 **첫째 사용연도와 둘째 사용연도의 상각액을 각각 6개월씩** 반영하므로 감가상각비는 300,000 + 200,000 = 500,000원이다.

계산 과정

건물 취득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했으므로 총 취득금액 2,000,000원을 **취득 당시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치 합계는 1,000,000 + 1,500,000 = 2,500,000원이고, 건물 배분비율은 $\frac{1,500,000}{2,500,000} = \frac{3}{5}$이다. 따라서 건물 취득원가는 $2,000,000 \cdot \frac{3}{5} = 1,200,000$원이다.

사용연도별 연간 상각액: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각 사용연도 초의 잔여내용연수를 연수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잔존가치가 0원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200,000원이며, 연수합계는 3 + 2 + 1 = 6이다. 첫째 사용연도의 연간 상각액은 $1,200,000 \cdot \frac{3}{6} = 600,000$원이고, 둘째 사용연도는 $1,200,000 \cdot \frac{2}{6} = 400,000$원이다.

2016년 1~6월: 2015년 7월 1일 취득했으므로 첫째 사용연도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다. 2016년 상반기 6개월분에는 첫째 사용연도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600,000 \cdot \frac{6}{12} = 300,000$원을 인식한다.

2016년 7~12월: **취득 후 1년이 지난 2016년 7월부터** 둘째 사용연도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하반기 6개월분은 $400,000 \cdot \frac{6}{12} = 200,000$원이다.

2016년 감가상각비: 상반기와 하반기 금액을 합하면 300,000 + 200,000 = 500,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